

# 진안군,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마을만들기 사업 정책간담회 개최... 다양한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6일 이항로 군수와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소속마을 위원장, 군청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공동체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마을간사제도 확대, 지역농산물 판매 방안, 마을축제 참여마을 확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성화 등 사전에 논의된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사업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는 2006년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5단계) 사업 중 3단계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사업지구 추진위원장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지구별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는 35개 마을과 권역이 참여하

고 있고 2008년부터 3년간 금요장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11년 로컬푸드 사업단(진안마을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소농과 가족농을 위한 마을생산품의 유통과 소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진안군 마을만들기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많은 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드림스타트, 아동 언어·인지·심리치료 지원

장수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언어발달이 더디거나 인지학습, 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18명에게 4월부터 10월까지(총20회) 언어·인지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관내 해맑은아동심리발달센터와 재순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언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1:1 치료 및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 중의 사소통 문제, 주의산만, 과잉행동 등 사회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 6학년)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제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 중의 사소통 문제, 주의산만, 과잉행동 등 사회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 6학년)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제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2기 사회복지대학 입학식

2017년 제2기 사회복지대학 입학식이 6일 진안군사회복지센터에서 입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복지대학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노·노간병 시대를 앞둔 우리 현실에 맞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발적 복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학사일정은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 24일 졸업식까지 매주 목요일 20주차로 진행된다.

수강과목은 복지와 경제, 복지현장 실천사례, 건강과 노후복지, 사회복지 현장체험, 웰다잉, 선진지견학, 공예체험, 원예치료, 라인댄스 등 다양한 수업으로 이뤄진다.

김진 사회복지대학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회복지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 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건강한 꿈나무 만들기' 운동 교실

### 미취학 아동 대상 10월까지

진안군은 6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7일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올바른 운동습관과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꿈나무 만들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꿈나무 만들기 교육은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들 체력 향상, 자신감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아 전문 건강프로그램이다.

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운동기구를 활용한 신체 활동과 스트레칭으로 진행하며 평생 건강습관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으로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한 꿈나무 만들기 교실은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7개소 보육시설이 참여하며, 6~7세 미취학 아동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24주에 걸쳐 유아 전문강사의 지도로 신체활동 등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전후 어린이들의 키, 체중, 비만도를 확인하고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상태와 유연성, 민첩성 등 체력상태를 비교 측정하며 참여 어린이와 보육교사의 만족도를 조사해 운영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영화 만드는 성취감 청소년 꿈 키워줄 것"

### 무주군 주민시네마스쿨 개강... 임혜령 다큐 PD, 무주중학생 18명 교육

무주군 주민시네마스쿨이 영상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6일 개강했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지역 내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시키고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 편집,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

임혜령 다큐멘터리 PD가 강사로 나서 8월(상반기)까지 무주중학교 학생 18명과 함께 단편영화(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과정(영상제작 이론 및 실습)을 공부한다.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에서는 캠퍼스를 활용한 영상 촬영과 기획, 구성, 편집 등의 심화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는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주민시네마스쿨 수강생들에게는 2017 전북사랑 UCC공모전을 비롯해 2017 전북청소년영화제 등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편의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한



무주군 주민시네마스쿨이 6일 개강했다. 임혜령 다큐멘터리 PD가 강사로 나서 무주중학교 학생 18명과 함께 단편영화 제작을 공부한다.

뻔 더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을 비롯한 진안, 장수, 임실 주민시네마스쿨 수강생들의 작품(2015)은 지난해 6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길 섹션(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상영됐다.

무주군에서는 2015년부터 주민시네마스쿨이 운영되고 있으며 50명

이 영상제작교육을 수료했다.

UCC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총 5편으로 이 중 1편(잘못된 비밀)은 2016 무주산골영화제 초청대 상영되고 또 1편(허 밑에)은 2016 전북사랑 UCC공모전에서 우수상, 2016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맞춤형 노인복지 추진 221억 투입

'더불어 함께'를 지향하는 무주군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로 이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자리와 공동생활, 여가시설을 지원한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의료원격

협진,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도 신규로 추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도 1,261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노인회와 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을 통해 운영하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홈 클리닝, 보행보조기 지원, 건강검진 등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진행 수령원지력 양수발전소 지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은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을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0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동회 복지관은 무료급식 사업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어울려 즐겁고 활기찬 식사를 함으로써 기분 좋은 에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수발전소에서 연간 총 700만원 지원이 이뤄지며, 무료급식 진행 시 배식지원봉사에도 참여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수발전소 이명주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제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장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진장소방서, 이동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무진장소방서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생생하고 다양

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방안전교육 전문차량으로 영상교육 체험, 열·연기 대피 체험, 지진 문 개방 체험, 지진 체험, 대피 체험(유도등, 비상탈출구), 생활안전 체험(진

기·가스), 탈출 체험(비상탈출용사다리, 완강기, 경사하강식구조대, 공기안전매트) 등 10여종 안전체험을 할 수 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이용관련 접수 및 문의사항은 방호구조과 (350-6242)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경찰서, 사이버범죄 예방 간담회 가져

무주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30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장, 파출소장, 마을 이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모바일 인구의 급증으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며 해마다 사이버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시행중

인 3대 사이버 반칙행위(△인터넷먹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설명했다.

나영민 서장은 "사이버범죄는 최근 시골과 장년층까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체감치안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